

5. 산상수훈 (1)

A. 예수의 공생애 시작 4:12<="그 때부터... 비로소"(4:17) => 11:13

- 왜 나눌까? (저자의 속마음 엿보기) 요한이 잡힌 이유? (14:1-12//막 6:14-29; 마 3:7 => against baptism). 천국(하느님 나라)를 선포함이 로마제국의 기독교인에게는 위협 (=>체제전복)
 -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말만 기록 (막 1:15).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요한의 메시지(율법과 선지자) 연장선(마 5:17), 그러나 차별화 (마 11:13)
 - 요한의 말=> 마 3:2 [καί] λέγων· μετανοείτε· ἤγγικεν γὰρ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.
 - 예수의 말=> 마 4:17 καὶ λέγειν· μετανοείτε· ἤγγικεν γὰρ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.
- 마 4:23//9:35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ῆς βασιλείας ("천국복음"?)=>직역. "제국의 복음"; 막 1:39 (preaching, 전도). 천국(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) 대신에 제국/나라(ἡ βασιλεία)를 쓴 이유?
 - 1) 그게 그거다 (증거?); 2) 약자(略字) (왜?); 3) 다른 이유 (그게 뭘까?)=> 보통 "제국"은 로마제국, 기존의 정치/지배체제를 상징. 그러나 여기서는 ideal 한 의미—하느님 나라(천국).
 - 결국 현 체도에 대한 부정(否定), 고발, 도전이 담겨있다. (그런 제국/나라 말고! 참 제국/나라란...)
- 무리들(4:25; 5:1, + 총 50 번)=산상수훈과 막 1 장과 차이 (마가=>회당에서 가르침. 마태복음에서 회당은 몹쓸 곳=>4:23//9:35: "저희 회당"), 무엇보다 예수의 성공적인 데뷔(debut)는 회당이 아닌 산에서 => 모세 (출애굽기 19-24 장, 특히 십계명 출 20 장/신명기 5 장). 사람들의 놀람 (마 7:29//막 1:22)

B. 8 복--천국(하느님 나라)이 저희 것임이요? (Q. 무엇에 빚낸 말인가?)

- 복이 있나니/복되도다 (마 5:3-12)=> 시 1:1 (Q. 복있는 자는?) Preface to the Davidic ideology/theology/gospel (vs. Other nations => 시 2:1)
- 이사야 61:1-3 =>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. 현 지배체제/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. 인격/수련을 말한다기보다 (순종은 가진 자들이 피지배계급에게 요구하는 덕목=> status quo), 그런 폄박을 받은 사람들에게 고통/억압의 종말을 선언! Q. 왜 복되냐? 댓가(reward) 때문이 아님; 보다 근본적인 문제=> 기존체제의 복음, 그런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.
- 처음 네 개(5:3-6), 가난, 애통, 온유(πραεῖς=>πραΰνῃ, afflicted), 굶주림(hunger)은 피해상황. 나머지(5:7-12)는 천국(하느님 나라)를 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=>자비, 순결, 화평, 의를 위한 투쟁.
 - 온유한 자(πραεῖς=>πραΰνῃ, TNK, the lowly)와 땅의 기업=> 행악자로부터 해방 (시 37:1-11)
 - 순결한 마음(마 5:8)=> 이 세상의 마음/이데올로기/복음/가치관에 물들지 않음

C. 예수의 신학하기=> 신학 다시하기. "너희는 들었으나, 나는 말하노니"

- 전체. 율법의 완성 (마 5:17=> 롬 10:4)
 1. 살인 5:21-26
 2. 간음 5:27-30, 31-32
 3. 거짓증언 5:33
 4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5:38
 5. 원수 사랑 5:43-48
- 언행일치=> 신학/신앙의 일관성.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(5:20)? =>갑자기 웬 서기관/바리새인? 마 23:2, 13, 15, 23, 25, 27, 29 (12:38; 15:1)
- 마 5:48 하느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/ Be perfect, therefore,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. (cf. 신 18:13, You shall be perfect with the Lord your God)

생각해 보기

1. "심령이 가난한 자(οἱ πτωχοὶ τῷ πνεύματι, the poor ones in spirit)"란 누구를 말할까? => 힌트. "무리들" 마 4:18-22
2. 성서/예수/교회는 이렇게 말하지만, 나는 (그렇게 말하는 근거는? => 자신의 정체성/행동윤리)